

부활 제 5 주일

제 1 독서 : 사도 14, 21b-27

제 2 독서 : 묵시 21, 1-5a

복 음 : 요한 13, 31-33a, 34-35

# 순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 34c)

## 강론

## 소리

### 서로 사랑하여라

### 행사를 위한 행사

이수현 신부 / 주현동 천주교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하는 노랫말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사랑은 솜사탕같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것만은 아니다. 솜사탕같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은 사랑의 속성이라기보다, 진정한 사랑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라고 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

깊고 깊은 산중에, 그것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바위틈 사이에 수줍은 듯 피어 있는 이름모를 들꽃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감동을 느끼게 된다. 보란듯이 화원에 피어 있는 모든 꽃들이 아름답지만, 그보다는 가냘픈 모습으로 바위틈에 수줍은 듯 홀로 피어 있는 이름모를 들꽃이 더욱 아름답고 소중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정한 사랑은 이러한 들꽃과 같은 겸손함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까, 이만큼은 받겠지’라는 계산적인 사랑과 누군가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한 희생과 봉사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내어 주는 철저한 희생과 그로 인한 십자가의 고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랑을 가장 완전하게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 34-35)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서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이 전제됨을 생각해야 하겠다.

숨막히고 흉악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위틈에 수줍은 듯 홀로 피어 있는 들꽃의 겸손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들꽃과 같은 겸손으로, 그리고 나의 희생과 십자가의 고통까지 감수할 각오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자.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다운 크리스천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이 세상은 그야말로 솜사탕같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을 누리는 하느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몇십 번의 국가적 행사를 치른다. 그 중에서도 신록이 넘실대는 5월은 각종 행사가 몰려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어린이날을 비롯 석가탄신일, 어버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등등.

1년 삼백예순다섯날,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었으나 우리가 어떤 날을 지정하고, 기념을 하며, 성대한 행사를 치무는 것은 그 날에 맞는 뜻을 다시 한 번 깨우쳐 보고 그 뜻을 되새기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항상 어떤 행사를 치루면서 경계해야 할 일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기념일만 되면 그에 연관된 행사를 펴면서 온통 북새통을 떨다가도 다음날부터는 그 숭고한 뜻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마는 일이 종종 있어 왔다.

금년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도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 날이 지났다고 내년 어린이날까지 어린이를 받들지 않아도 되며 어버이날의 본뜻을 잊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 년 365일 모두가 어린이날이며 어버이날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내일(15일)이 성년(成年)의 날이며, 스승의 날이다.

직장과 학교에서는 성년이 되는 청소년에게 축하와 함께 그들에게 성년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일깨워 줘야 한다. 그럼으로써 그들이 책무 또는 의무, 그리고 권리에 대해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앞으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또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배움의 터에 있는 이를 위한 노고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경의 뜻을 표해야 한다. 이 또한 하루만의 행사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 순정이 산책



잘못된 정치 교회가 바로잡아야...

특 집-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 기념식을 보고

# 모두가 하나되는 순간

문치상(비오)/금암동 천주교회

모두가 하나되는 순간이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여자도 남자도, 노인도 젊은이도 땅바닥에 앉고 서면서 입술을 열었다.

햇볕은 다사롭고 하늘은 맑았지만 간간히 휘몰아치는 바람은 흠뻑지를 안겨 줬다. 그래도 누구 하나 불평불만을 터뜨리지 않았고 바람을 피해 자리를 뜨지 않았다. 참석 한 모두는 개회식·미사·기념식·한마당잔치가 끝날 때까지 성숙한 자세로 성모의 군단임을 자랑했다.



1995년 5월 5일, 전주 해성중·고 운동장은 이른 새벽부터 도내 곳곳에서 모여든 레지오 단원들이 무리지어 각 분당 팻말 앞에 자리잡고 '모든 사목자와 평신도가 친교와 화합의 일치로 이루어 민족이 하나가 되는 통일조국을 위하여' 목상했다.

전주교구 레지오 마리아 창설 40주년을 기념하는 이 날 행사에는 000명의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 백실리움을 선두로 한 성모상·초·꽃 그리고 레지오·꼬미시움·꾸리아 단기의 입장은 '마리아의 군사로서, 마리아의 자녀로서 온전히 마리아께 의탁함'을 선언하는 계기가 됐다.

이어 등장한 우수 브레시움의 단기와 45명의 장기근속 수상자, 2명의 기념상 수상자, 95명의 우수단원 수상자, 2명의 특별상 수상자, 6명의 감사패 수상자의 입장은 레지오의 봉사정신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하는 데 충분했다.

십자가를 앞세운 사제단의 입장은 '말과 모범으로 신도들을 보살피는 일꾼과 목자로 우러러보인 가운데 든든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뱀의 머리를 바우고 그리스도 왕국을 발전시키기 위해 앞장 선 레지오 단원들의 힘찬 박수와 열광은 나와 너, 이웃과 동서남북이 하나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소리요 메아리였다.

전주 파티마의 모후 고흥석(요한) 레지오 단장의 인사말처럼 '주님의 큰 은총과 성모님의 따스한 사랑이 해성하

교 교정에서 바다의 별처럼 찬란하게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가슴에 새겨진 하루'로 손색이 없었다.

이 날 이병호(빈첸시오)주교는 강론을 통해 '천주교 신자는 40년 전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체인구의 7.5%(350만)에 달하는 것은 오직 레지오 단원들의 공로'라고 치하하고, '그 힘의 비밀은 깊은 영성으로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복음 선포자는 성령의 힘

으로 정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이에는 제 욕심과 편안함 때문에 높은 벽이 가로 놓여 있다'며 '남을 위하고 의식하는 가운데 과감하게 벽을 헐어 모두가 하나되자'고 강조했다.

의식이 끝나고 삼삼오오 짝을 지어 교실과 복도 그리고 꽃밭과 잔디밭 심지어는 관광버스 그늘에까지 푸짐한 나눔 잔치는 행여 굶는 자가 없는지 외로운 자가 없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며 한 잔의 술과 한 병의 음료수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었고 배움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다.

오후2시부터 계속된 한마당잔치는 흥겨운 농악이 어우러지면서 단원들의 어깨춤을 유도했고 중앙 성당의 수화노래는 잠시잠깐 장애인의 삶을 연상시켰다.

더구나 송천 성당의 '천주놀부전'은 배բ이 빠질 정도로 웃음을 자아냈으며 사회자의 만담 또한 시름을 기쁨으로 바꿔주었다.

공중촬영으로 거창한 기념식을 사진으로 남기겠다는 정지영(요셉) 홍보부장의 꿈은 세찬 바람 때문에 좌절되더니 급기야 뒤늦게 나타난 헬기콥터는 마냥 아쉬우만 남겼다. 대신 수많은 가톨릭 사진작가들의 분주함이 돋보이면서 수녀작가의 모습을 담느라 이리뛰고 저리뛰고...

제발 이 날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불타는 힘찬 믿음으로 미지근한 이들을 열정으로 불태우고 주님의 사랑과 영광의 나라에서 다시 모일 수 있기를' 기원한다.

## 그린버티컬

커티, 버티컬, 블라인드  
롤스크린, 슬라이딩(칸막이)  
장상수(바오로)  
이양님(루시아)  
영등동 성당 ↔ 동부시장 사이  
☎ (0653) 52-0018

## 효자한의원

한방각과, 비만, 알러지성 체질,  
요실금 치료  
박우순(유스티노)  
유혜경(루시아)  
효자성당 ↔ 목화APT 사거리  
☎ (0652) 222-3129, 226-1075

## 자연산 활어 전문점

23호 회센터  
도다리, 농어, 광어  
<차량대기, 전화주문 신속배달>  
최금석(요셉) 윤은숙(소피아)  
송천동 직판시장 2층  
☎ 254-7129  
호출기 012-682-0046

## 신장개업 이리삼부가스

조정숙(세실리아)  
영등동 273-7번지  
☎ (0653) 52-3082, 857-6673

잠깐

성모 성월

5월은 성모 성월, 이 시기에 교회는 특별히 성모께 공경을 드리며 성모의 모범을 따라 특별한 전구와 은총을 청함으로써 성모 신심을 실천한다. 5월 성모 성월을 맞아 그 기원과 의미, 신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 등을 간추려 본다.

기원

교회가 5월을 성모 성월로 확정한 것은 1921년 교황 베네딕도 15세가 성모 마리아를 '모든 은총의 중개자로' 선포하면서 5월을 성모 성월로 공식 인준한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현재와 비슷한 성모 공경 예절은 이미 16세기 초 이태리에서 시작되어 프랑스, 스위스, 독일 등지로 퍼져 나갔으며 1815년 교황 비오 7세는 이를 장엄하게 인정, 권장하였고 1965년 교황 바오로 6세도 그의 회칙 「5월」에서 성모 공경을 더욱 권장한 바 있다.

한국에는 중국의 예수회 선교사 이 탁이 쓴 「성모 성월」이 1887년 번역 출간되면서 성모 신심 묵상용으로 오랫동안 활용되기도 했지만 현재 대부분 그 내용은 사라지고 성모 성월 기도문만 통용되고 있다.

의미와 우리의 자세

성모 성월은 일상적인 성모 공경 외에 성모 마리아의 삶과 덕을 묵상하며 공경을 드리고 간구를 청하는 시기이다.

성모 성월에 우리가 기리고 되새겨야 할 참 뜻은 하느님께서 동정 마리아를 통해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으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루가 1,38)라고 했던 마리아의 자유스러운 대답으로써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도 하느님의 무한한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세상 구원 사업에 동반 협력하고자 하는 의향을 갖는 것이 바로 성모 성월 기도의 참뜻이다.

교구 소식

- 1. 축! 견진: 5월20일(토) 오후4시 호성동 성당, 5월21일(일) 오전10시30분 고산 성당
  - 2. 교구장 사목방문: 5월19일(금) 신평, 원평 성당
  - 3. 재무평의회: 5월16일(화) 오전10시 교구청
  - 4. 참사회: 5월18일(목) 오전10시 교구청
  - 5. 새 사제 연수과정: 5월18일(목) 교구청
  - 6. M.E 재주말교육: 5월19일~21일 천호 피정의 집
  - 7. 레지오 마리아 단원 영성 피정: 5월16일(화) 천호 피정의 집, 대상-도동동, 나운동 Cu
  - 8.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5월21일(일)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 9. 빈첸시오 교구 중앙이사회: 5월20일(토) 오후3시 둔율동 성당
- ※ 축! 영명: 18일(성에릭) 윤에릭 신부님

5.18 광주 민중항쟁 15주기 추모

- 미사: 5월 18일(목) 오후7시30분 남동 천주교회, 주례-윤공희 대주교
- 거리음악회: 5월19일~20일 오후6시30분~9시30분 광주 가톨릭센터 앞 거리

요심이 (1132) 김병오



사무장 구함

- 1. 자격: ①영세한 지 3년 이상(남) ②운전면허 소지자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연락처 명기)사진부착, 세례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서류접수및 문의: 소양 성당(244-3007, 244-1771)

성전건축 상량 기념

바자회

때: 6월8일~12일까지 "좋은 물품과 맛있는 음식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자 우전 성당

직원모집

- 1. 직구분: 기능직(사무보조) 남자1명 2. 제출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고교생활기록부사본 각1통 3. 제출처: 전주해성중고등학교 서무과(224-6114)
- 4. 제출일자: 95.5.20. 12시까지 학교법인 해성 학원

동산동 아남제일대리점

T.V · 전축 · V.T.R 김남태(바오로) 김윤태(돈보스코) 이리시 동산동 동양호텔 옆 ☎(0653)842-2604~5, 54-9504 아남서비스 834-2628

(유)우도건설

온실설치공사업(유리,PC,비닐자동화) 저온저장고,축사,결하장 소근호(스테파노) ☎(0652)243-6866,241-2546 호출기 012-681-0377 휴대폰 011-671-0377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회 성소 피정 안내

일시: 5월20일~21일 오후 5시 장소: 예수 고난회수도원(광주 일곡동) 준비물: 운동복, 목주, 필기도구, 세면도구 피정비: 3,000원 문의: (062)571-5004, 8004

치질전문치료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0652)75-055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부활 제5주일

● 주일헌금 및 교무금 납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1. 남전주지구 초등부 소풍: 오늘 동틀원
  2. 부녀회 단합대회: 18일, 회비-8천원  
\* 저녁미사 없고 새벽미사 있음
  3. 가정방문 안내: 19일-기린봉 1반
  4. 비품마련 특별헌금 신입액: 소계-315만원, 누계-2,165만원  
불헌액: 이봉기(마리오)-15만원, 김갑인(요셉), 최영숙(테레사)-각 10만원, 송병길(루가)-100만원, 박봉례(안나), 안복례(마리아)-각 3만원, 이남운(요한), 박귀남(모니카), 이병임(빅토리아)-각 5만원, 익명-30만원, 김병욱(마카엘)-3만5천원, \* 소계-189만5천원, 누계-1,503만5천원.  
\* 아직까지 신입하지 않으신 분은 신입하여 주십시오.
  5. 모임: ①장우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여성연합회(17일 어머니미사 후)  
③재속형제회(20일 후 2시)  
④대전회(21일 장엄미사 후)
  6. 금주 청소: 중노 16, 17반  
차주 청소: 중노 18, 19반
- 지난주 봉헌금: 928,910원 □ 교무금: 1,136,000원  
□ 2차헌금: 417,470원

**\* 서희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1. 모임 안내: 프란치스코삼회-오늘 오후 2시, 장소-강당
  2. 성모의 밤: 5월20일(토) 오후 7시, 많은 참석바랍니다.
  3. 예비신자 모임: 6월4일(일) 공식미사 후  
\* 한 가정에 한 분씩 인도합니다.
  4. 축! 결혼: 오늘 공식미사 후, 신랑-장길만(비오) 신부-김희라(엘리아)
  5. 금주 전례: 5월14일(일) 전례-유용산(바오로) 독서①이재호(리차드) ②이상여(엘리사벳)  
차주 전례: 5월21일(일) 전례-이동제(베네딕도) 독서①최기호(노바) ②손정순(아네스)
  6. 청소 안내: 금주-사랑의 샘 차주-상아탑
  7. 성전의자 성금내신 분: 허태욱(마티아) 300,000, 리창윤(마르코) 100,000, 최옥자(헬레나) 50,000, 정금순(마리아) 30,000, 김보임(수산나) 50,000
- 지난주 봉헌금: 1,359,300원 □ 교무금: 909,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황길평

1. 첫영성체 교리: 16일(화) 오후 4시반에 첫교리 시작합니다.  
(첫영성체 어린이와 어머니 같이 나오세요)
  2. 성가대, 성모회 단합대회: 18일(목) 오전 9시 성당에서 출발합니다.
  3. 가정방문: 17일(수) 오후 2시-1반  
18일(목) 오전 10시-다가 4반, 오후 2시-다가 3반  
19일(금) 오후 2시-다가 2반
  4. 모임 안내: 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꾸리아-오늘 오후 2시  
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파스카 형제회-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남지구 사생대회: 오늘 성당에서 8:50에 출발, 도시락 준비하세요. 장소-동틀원앞 체련광원, 대상-유치부, 국민학생-개시관 참조하세요.
  6. 전인물 환영합니다: 이남순 헬레나(중앙 1반) 최윤정 테오필라(진부 2) 황경순 소피아(다가 4반) 황옥진 도미니카, 정삼래 막달레나(완산)  
성당 청소: 21일(토) 바다의 별Pr, 자비의 모후Pr.  
금주 전례: 해설-조옥례, 독서-강주호 부부  
봉헌-육경수 가족  
차주 전례: 해설-유복규, 독서-라경섭 부부  
봉헌-이갑규 가족
- 주일헌금: 525,400원 □ 교무금: 804,60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5월은 성모 성월: 성모님의 삶과 덕을 본받읍시다.

1. 모임: ①안나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새 영세자 모임, 성가대-다음주일  
③장년회-20일(토) 저녁 8시, 장소-성당 회의실
  2. 축! 혼인:  
· 신랑-홍영훈(베드로) 신부-최인이(막달레나) 오늘 12시30분  
· 신랑-문민호(막시모) 신부-김경숙(파넬라) 오늘 14시  
· 신랑-정수연, 신부-양경화(막달레나) 21일(일) 11시30분
  3. 안나회 성지순례: 22일(월) 장소-수원교구 남양성지
  4. 고 김완준(베드로) 49제 탈상미사: 21일(일) 오후 5시 성당
  5. 성모의 밤 행사: 27일(토) 저녁 8시  
\* 준비물-목주, 초, 꽃, 성모님께 드리는 글
  6. 성당 청소: ①금주-바다의 별Pr.  
②차주-천사들의 모후Pr.
  7. 금주 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이육동 ②이춘봉  
봉헌-강덕용 가정  
차주 전례: 해설-김미남, 독서①김영신 ②주영례  
봉헌-이명수 가정
- 지난주 봉헌금: 365,010원 □ 교무금: 609,000원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박동진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행

● 부활 제5주일

1. 금주: ①자모회(전 10시)  
②일치의 모후 꾸리아(후 2시)  
③사목회(후 8시)  
④에비자 교리 개강(공식미사 후, 교육관)
  2. 사라회: 16일(전 11시)
  3. 나자렛회: 16일(전 11시)
  4. 돈보스코회: 17일(후 7시30분)
  5. 사베리오회: 17일(후 7시30분)
  6. 구역 반장 모임: 18일(전 11시)
  7. 꾸르실료 여성 49차 교육입소: 박미애(레지나), 이영주(리디아) 많은 기도바랍니다.
  8. 5월중에 가족, 단체 사진 촬영(1매는 사무실에 제출)바랍니다.  
(사진 촬영장소: 성당 앞 마당)
  9. 차주: ①바비의 성모Cu(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 주일헌금: 2,364,06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1. 특별강론: 범석규(마티아)신부님-21일 전 5시30분, 10시30분
  2. 빈센시오회, 자모회 연석회의: 15일 저녁 7시30분  
본당 신부님과 연담, 제 1회합실
  3. M·E 재주말 교육: 20일 후 2시~21일 후 7시 천호.  
첫 주말강습을 다시 체험하고 싶은 부부는 누구나 환영함.
  4. 반미사: 저녁 8시, 16일 7-7, 17일 9-3
  5. 예비자 교리반 안내: ①권 실비아 수녀님-수요일 전 10시  
②오 말다 수녀님-목요일 전 10시 ③본당 신부님-목요일 저녁 8시  
④권 실비아 수녀님-토요일 후 5시, 학생교리
  6. 성소 후원의 날: 21일 공식미사 후, 매 미사 전후 회비 납부
  7. 미사시간 안내: 19일(금)만, 새벽 5:30.
  8. 사무원 인수인계: 15일 김 안나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후임-김 누실라 수고하시겠습니다.
  9. 회의: ①성체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모회-17일 어머니미사 후 ③임바누엘, 한빛회-21일 공식미사 후 ④청년회-21일 저녁미사 후
  10. 개업 축복미사: 16일 전 10시30분, 엄 사관  
평화주공APT 입주 상가 내 엄성봉(그레고리오) 82-7144
- 지난주 봉헌금: 1,420,650원 □ 교무금: 696,000원